

기타 만성합병증 간질환

간도 혈당조절에 공신, 하지만 고혈당엔 굵신

간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이며, 체내 혈당을 조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사 후 많은 양의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장에서 흡수되고 혈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해 일부 저장된다. 그렇게 저장된 포도당은 공복시간이 길어지거나, 우리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쓰이게 되는데, 당뇨병으로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간, 간 비대 등 심하면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지방간

지방간이라고 하면 으레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도 비만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은 원인으로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같은 질환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이것은 간이 지방대사에도 관여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탄수화물 등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은 체내에 쓰고 남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한다. 그 후 음식 섭취가 부족하면 저장해 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한다. 하지만 혈당이 너무 높고, 인슐린이 부족하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간의 기능이 떨어져 지방이 계속 쌓여 지방간이 생긴다. 지방간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식욕이 없어지고 체중이 감소하며 구역질, 성욕저하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간염

간염은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지방간 등에 의한 간 손상으로 간세포가 파괴 되어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데, 당뇨병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은 C형 간염이다. 당뇨병환자는 혈당검사를 위한 혈액채취를 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오염된 주사바늘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혈액으로 전염되는 C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높다. 또한 반대로 C형 간염환자에게 당뇨병 발생의 위험도 높다. C형 간염에 걸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병이 잘 유발되는 것이다. 간염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전신이 붓고, 배에 물이 차며, 피를 토하거나 혈변을 보기도 하고, 소변양이 감소하며 정신이 혼미해 질 수가 있다.

간경변증

간경변증은 당뇨병환자에서 주요 사망원인 및 간이식의 원인이다. 당뇨병이 심하고 간질환의 증상이 악화되면 간경변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슐린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서 잘 나타난다. 전신이 쇠약해지고 만성피로를 느끼며 소화가 잘 안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심하면 사망에 까지 이른다. 